

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박차'

군산시, 산업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공모 선정... 국비 47억원 확보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국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47억원과 시비 8억 등 총 8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전라북도·군산시·전주시 등 3개 지자체와 전북대·군산대·전주대 등 3개 지역대학, IS일렉트릭·OCI파워 등 26개 도내기업이 참여하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 주관기관을 맡는다.

주체 간 역할로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 총괄기획, 연차평가 운영·조정, 성과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들은 지역에너지산업 수용에 부합하는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전력 연결 등 각 분야의 석·박사 인력 양성 및 졸업생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은 석·박사 졸업생 인턴십 연계 지원과 취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기업에서 필요

로 하는 현장경험을 겸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5년간 약 150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업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성된 고급 인재를 지역기업 맞춤형 취업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수급차이 해소 및 고급인력의 지역 내 정착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및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스마트한 '익산형 미래 도시' 구상한다

스마트 도시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도시경쟁력·삶의질 향상 도모

익산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익산형 미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20일 오후 1시 시장 권한대행과 전문가 간담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위상 △스마트도시 공간계획 △스마트도시 데이터 활용 및 진흥방안 △시민 리빙랩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익산형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방안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스마트도시의 로드맵 구상계획이 보고되었다.



익산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익산형 미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비전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맞춤형 특화서비스 모델 도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국비재원조

달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업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시행사는 나눔CT(주)

로 시민리빙랩, 중간·완료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도심 힐링 공간 '수직정원' 확대

익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수직정원'을 확대한다. 수직정원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심과 휴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시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으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미세먼지 저

감을 위한 수직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스쿨팜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주말가족농장, 노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직정원은 식물이 건물 외부나 내부 벽면에 수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하고, 미세먼지 흡착·공기정화·가습 등의 효과가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아진 도시민을 위한 정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벼 재배 핵심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예찬·미호·참동진 재배 교육

익산시, 벼 재배 핵심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벼 재배 핵심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20일 신제품 조기 확산과 품종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농업인과 자율교환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찬, 미호, 참동진 벼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신제품 조기 확산과 최고 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과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 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벼 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업들이다. 예찬벼는 지난해 13.5ha에서 올해 24ha, 참동진벼는 지난해 7.8ha에서 올해 78ha로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미호벼는 지난해 100ha 규모의 단지가 조성됐으며 재배한 쌀을 팜조아와

CI 프레시에에 납품하며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이바지했다. 강사로는 벼 육종 전문가인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백만기 박사과 박현수 박사가 참여해 예찬벼·참동진벼·미호벼의 주요 농업적 특성 설명을 통해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재배 핵심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제품 지역 적합 우수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고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함께 잡고(JOB-GO) 취업동아리 모집

군산시는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협력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미취업자의 능동적인 취업활동 및 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군산시와 함께 잡고(JOB GO)'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취업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사업은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능동적 참여유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의 지역 외 유출 방지와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 3-4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로 10개의 동아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며 서류 면담 심사 절차를 통해 취업목적 및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월 12만원씩 최대 6개월(72만원)을 지원받으며 취업 전략특강 및 전문가 취업 컨설팅 매칭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063-454-4232)로 문의하면 된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빠른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며 미취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지원 본격화

익산시가 북부권 농촌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시는 20일부터 문화생활 등 제약이 많은 읍·면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본격화한다. 익산시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회장 김윤근)에서 주관하며 청소년수련관, 시간밖인 사색이슬, 익산일시청소년센터 등 4~5개소씩 2팀으로 나누어 사업에 동참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농협 합동지점 주차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테이블 달 모형 체험 홍보 및 성 상담 캠페인 활동, 찾아가는 거리 상담 등 기관별로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5기 외국인 통역봉사자 위촉식 개최

군산시는 국제행사 및 관내기업 지원을 위한 제5기 군산시 외국인 통역봉사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5기 군산시 외국인 통역봉사자는 군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외국어 재능을 가진 군산 시민 및 거주외국인의 지원으로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우크라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14개국 외국어 능통자 62명으로 위촉됐다. 지난 2019년 35명의 통역봉사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68회, 291명이 시 및 관내기업·민간단체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국제교류 무대에서 외국인 통역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행사 및 의민방문 등의 감소로 위축됐던 통역봉사자 활동은 감염병 대응과 함께 방역지침 공유 및 백신접종 안내 등 다양한 외국어 수요에 맞춰 변화해왔다.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통역봉사자로 지원하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민통역관으로 군산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